통불교사상에 입각해 화쟁통교이념 전개한 논서



원효의 십문화쟁론
박태원 지음
세창출판사 펴냄
2만천원


원효 대사 진영

원효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의 번역과 해설이다. 〈십문화쟁론〉은 원효가 화쟁의 통찰을 전면적으로 개진한 대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경전 내용을 따라가며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붙이는 주석서 형태가 아니라 저자가 설정한 주제를 독자적 체계로 전개하는 단독 저술이라는 점, 잔간(殘簡)의 내용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광활한 불교 이해와 탁 트인 사유 지평, 정밀한 논리와 수준 높은 논의는 원효의 수많은 저술 가운데서도 특히 〈십문화쟁론〉을 부각시키며 이에 대한 세인들의 찬탄을 전하고 있는 서당화상비문의 증언이나 후인들의 극찬을 충분히 수긍케 한다.

'십문화쟁론'이라는 서명의 의미를 '열 가지 유형의 쟁론을 화쟁하는 이론'으로 간주해 온 것이 관행이지만, 필자는 생각을 달리 한다. 원효가 그의 저술에서 즐겨 구사하고 있는 '문(門)'이라는 말은 '견해/주장의 조건적 타당성을 성립시키는 인과계열', 다시 말해 '견해 계열의 의미 맥락'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십문화쟁론〉은 '열 가지 주제에 관한 쟁론을 화쟁하는 이론'이 아니라, '견해 계열의

쟁론을 화쟁한 이론 아니라
견해계열 맥락의 화쟁 이론

열 가지 의미 맥락으로써 화쟁하는 이론'이 된다. '십문'의 '문'은 화쟁의 방식인 것이다. 〈십문화쟁론〉이라는 저서의 성격과 내용은 기존의 통념적 이해와는 다른 것이 된다. 〈십문화쟁론〉은 불교사상의 열 가지 주제에 관한 견해 다툼들을 화쟁하고 있는 논서라기보다는 상이한 관점들을 각기 성립시키는 견해 계열의 의미 맥락을 열 가지로 식별하여 불교사상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들의 불화와 충돌을 치유하는 논서로 보아야 옳다.

온갖 모순과 피아의 대립, 시비의 쟁론이 모두 끊어진 절대 조화의 세계가 무쟁이라면, 피아의 대립과 모순이 있는 현실에서 모든 대립과 모순 및 다툼을 조화, 극복하여 하나의 세계로 지향하려는 것이 원효의 화쟁사상이다.

십문으로 되어 있는 화쟁론의 제1문 '삼승일승화쟁론'은 화쟁의 총상(總相)에 해당한다. 삼승이 곧 일불승이요. 무량승이 모두 일승이라고 한 것으로, 이는 오직 원효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통불교사상이라 할 수 있다. 원효는 이러한 일승통불교사상에 입각하여 화쟁통교이념을 전개시켰으므로, 이것이 〈십문화쟁론〉의 총상이 된다.

제2문에서는 당시 국내외적으로 대승불교철학의 2대 조류로 되어 있던 중관파(삼론종), 유식파(법상종) 두 학파의 공(空)과 유(有)의 대립을 비판하고 과감히 공·유의 무대립론을 전개했다.

제3문에서는 모든 중생에겐 불성이 있어 성불할 수 있다는 설을 제시했으며, 제4문에서는 인(人)과 법(法)에 대한 불교계의 쟁점에 대해 논하고 있고, 제5문에서는 삼성(三性)에 대한 화쟁인데 그 원문이 훼손되어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원성실성(圓成實性)과 의타기성(依他起性)과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삼성에 대한 이론(異論)을 화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10문에서는 각각 오성(五性)·이장(二障)·열반(涅槃)·불신(佛身)·불성(佛性)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회통시켰다.

이 책에서 저자는 원효 사상에 대한 저자의 관점과 이해를 분명히 담아내기 위해, 〈십문화쟁론〉 번역 부분을 '직역(直譯)/의역(意譯)/해의(解義)'의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의역'과 '해의'를 덧붙임으로써 저자의 해석학적 관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현존 잔간에는 없지만 다른 문헌에서 인용 형태로 전하고 있는 〈십문화쟁론〉 내용도 번역하여 추가했다.

원효에 관한 저자의 동기는 '지금 여기의 실존 해법' 탐구에 있다. 저자는 여전히 범람하는 배타적 주장들의 폭력적 다툼을 치유하는 해법의 일단을 원효의 화쟁 통찰에 의거하여 모색했다. 나아가 원효의 화쟁사상에 관한 저자의 궁극적 관심은 '화쟁사상의 보편성'에 있다. 불교적 쟁론들을 화쟁시켜가는 원효의 논법과 통찰에서 '모든 시·공간의 인간사 쟁론상황에도 적용시켜 유효할 수 있는 화쟁 원리'를 읽어내는 것, 원효의 화쟁사상에서 쟁론의 보편적 치유 공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쟁론 치유력의 수준과 내용에 관한 것에 저자는 큰 관심을 갖는다. 〈십문화쟁론〉을 번역하고 그에 담긴 화쟁사상을 불교철학적으로 음미하는 이 책의 시선은 결국 '화쟁사상의 보편적 쟁론 치유력'의 문제로 향한다고 할 수 있다.

원효사상과 저작들에서 〈십문화쟁론〉이 차지하는 각별한 의메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번역이나 해설서가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에 책은 원효의 철학과 화쟁사상을 공부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역사는 현재이고 미래, 생명과도 직결



고구려, 역사에서 미래로
윤명철 지음
참글세상 펴냄
2만3천원

"고구려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강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신라가 주도한 신질서에 의해 부정당한 탓에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유물과 유적은 철저히 파괴되고, 기록은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 왜곡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영토의 상당한 부분이 민족사에서 떨어져 나간 지 오래된 망각된 역사였다. 고구려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숨겨지고 왜곡되었던 역사의 진실이기도 하다."

책은 고구려의 주몽에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고 화려했던 고구려를 재조명하고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보고자 했다. 민족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우리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중국과 일본만 생각해도 그 일의 의미는 적지 않다. 아니 충분하다.

"노련하고 현명한 중국과 약삭빠른 일본은 역사가 늘 현재이고 미래이며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포착하였고, 역사학이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간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이상, 성인들의 35%가


무용총 고분 벽화 '수렵도'.

6.25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 전쟁을 기억할 수 있는 연령은 68세(발발 당시 5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면 전쟁의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게 된다.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한국전쟁'은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인식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왜곡은 그 기록을 비트는 일이다. 기억해야 할 주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역사는 왜곡하는 이들의 것일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전쟁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기록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명한 기록을 꺼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를 잊지 않고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은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퇴적이 아닌 현재이고 미래이며,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때로 우리를 억압했던 중국,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혀왔던 일본은 벅찬 상대가 되어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동북공정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주변국의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난관인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난관은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한다고 책은 말한다.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역사 속에서 하필 고구려인가.

책은 "고구려는 왜곡되어 왔던 자의식과 억눌렸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주고 부당하게 취급되어 왔던 우리 역사의 진실들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21세기 한민족의 통일과 국가의 발전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그 전략과 방식을 모델로 삼을 수 있고, 고구려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성공한 큰 나라였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악스러운 세계 질서의 재편과정과 신문명과의 불안한 조우가 혼란을 일으키고 동아시아에서는 국가들 간에 영토분쟁을 비롯한 충돌들이 발생하면서 파국의 조짐마저 보이는 이 때, 2000년도 더 전에 태어났고, 생을 마감한지도 1350년 가까이 된 고구려를 이 시대에 새삼 조명하려는 이유인 것이다.

책은 우선 고구려가 왜 탄생했는지, 어떤 명분을 갖고 탄생했는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등에 대한 존재이유를 살피고 있다. 이어 역동감 넘치는 젊은 날의 혈기와 남다른 자의식, 다른 존재들과 벌인 경쟁과 갈등, 실존을 위협받고 나서의 비탄과 절망감, 극복한 후의 환희와 자긍심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창창한 하늘과 조상을 만나면서 그 바램들을 표현한 장군총 광개토대왕비 등의 문화유적들, 별처럼 많은 조상들의 무덤과 그 안에 신의 마음을 인간의 손길로 표현한 신비로움에 찬 벽화들, 초원을 짓쳐 달리는 기마군단과 바다를 항해하는 수군들, 알맹이처럼 목에다 설치한 성들의 이야기들, 기술력의 정제물인 온갖 무기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박재완 기자**

깨달음의 다양한 모색

깨달음의 스펙트럼

김현철 일숨 자운 지음 | 시단 펴냄 | 2만원



책은 '깨달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무묘앙에오까지,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 인문들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깨달음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책은 "깨달음은 어는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책은 이렇게 다양한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깨달음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을 선정하고, 그 인물들을 잘 보여주는 책을 선정하여 해설하고 있다. '깨달음'을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고 '더 이상'이 있을 수 없는 석가모니부처님에 대해서는 금강경이 아닌 수능엄경을 실었는데, 책은 "막상 존재를 알고 나서 보면 금강경이나 수능엄경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일 뿐이다."고 말한다. 그래서 해설서다 넘쳐나는 〈금강경〉보다는 수능엄경을 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책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앎'이다. 그 앎이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배고픔을 다양한 음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듯이 깨달음 역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책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마법까지 동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그리스도가 된 예수, 오쇼 라즈니쉬, 노자, 맹자, 무묘안 에오, 하이데거, 질 들뢰즈 등 20명의 인물을 통해 '깨달음'을 이야기 한다.

불교를 통해서도, 기독교를 통해서도, 마법을 통해서도, 과학을 통해서도, 명상을 통해서도, 무술을 통해서도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깨달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해서 '하나'로 가는 길에 오해와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다고 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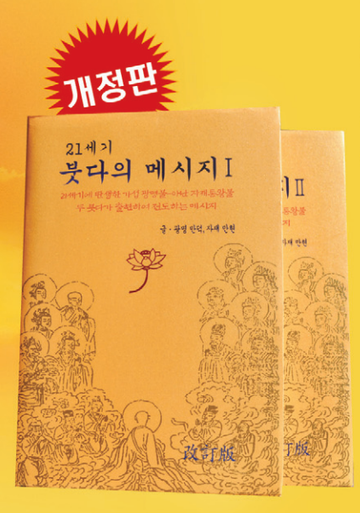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9 ~ 6/2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궁리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7	명상에 답이 있다	장현갑	담앤북스
8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9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걷기명상	조성래	알아차림
10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